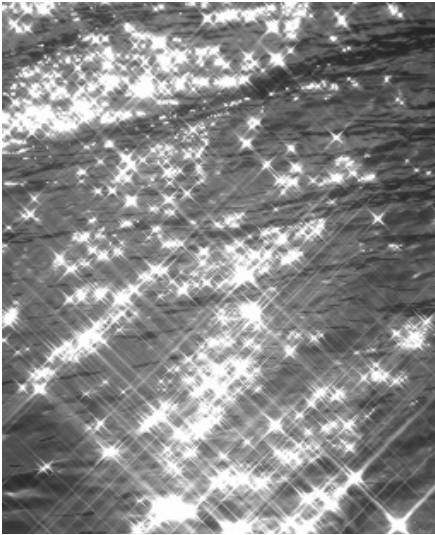


증득證得, 증거를 통해 얻다

| 월인 |

진리는 어떤 상도 없고 변화도 없으니 결코 마음으로 얻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증득을 통해서 알아채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상이란 서로상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각 진 느낌은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느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마음이 잡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상을 통해서인데 진리는 상이 없기에 마음으로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진여는 어떤 상도 없으니 증득만 가능하다

所言不空者, 已顯法體空無妄故, 卽是眞心, 常恆不變, 淨法
소 언 불 공 자 이 현 법 체 공 무 망 고 즉 시 진 심 상 항 불 변 정 법

滿足, 則名不空.
만 족 즉 명 불 공

亦無有相可取, 以離念境界, 唯證相應故.
역 무 유 상 가 취 이 리 념 경 계 유 증 상 응 고

불공不空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는 바로 진심眞心이며,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며 정법이 만족되기 때문에 불공不空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또한 취할만한 상이 없으니, 망념을 여윈 경계는 오직 증득함으로써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논論]

법체法體는 모든 현상과 법칙의 본질입니다. 이 법체法體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공공과 망령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란 텅 빈 것이지만 망령된 것은 아닙니다. 망령됨은 주로 마음이 일으키는 오해나 착각, 환영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러한 것이 없음을 심무망心無妄이라 하고, 망령됨을 여윈 것을 진여라고 했습니다. 정법淨法은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고 염법染法은 물든 마음을 말합니다. 진실된 본질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물들지 않은 마음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不空이라고 했습니다. 취할 만한 상相이라는 것은 마음이 잡는 상相입니다. 모든 상相은 마음이 잡아내어 분별하는 것이고, 깨어있기™ 식으로 말하면 감지입니다.

이것은 핸드폰의 충전기입니다(그림1).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충전기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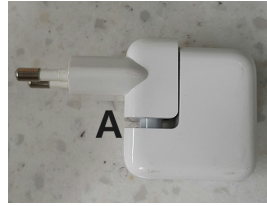


그림 3

면 상相이 있을 겁니다. 이 충전기에서 하나를 뽑아내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이것을(그림2) 봐도 이것이 아까 그 충전기라는 느낌이 있지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그림3). 무슨 모양 인가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코끼리 같다거나 재봉틀 같다거나 보기 불편한 느낌이라든가 각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눈 튀어나온 사람의 얼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재봉틀, 눈 튀어나온 사람, 코끼리 같은 상을 가지고 다시 충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그림1). 좀 전에는 그냥 분리된 충전기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재봉틀, 코끼리, 사람 얼굴이라는 아까 그 느낌이 좀 붙어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눈 튀어나온 사람 모습에서 이 부분을 빼냈기 때문에 여기(그림3의 A)가 입이라는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 충전기를 봤을 때(그림1)는 입이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시 보면(그림1을 돌려서 본다) 입이라는 느낌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것이 마음의 상相입니다. 마음의 상相은 신기하게도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꼭 실질적인 이 물건과 상 관없는 상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좀 전의 저것과는 상相이 달라졌고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나 코끼리, 재봉틀 등의 말을 하기 전에 봤을 때와 얘기하고 나서 충전기를 다시 봤을 때 상相이 달라진 것처럼, 마음의 상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여에는 그 어떤 상相도 없습니다. 앞에서처럼 상相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느껴지고, 알게 됩니다. 느낌도 일종의 상相으로, 말이 안 붙은 분별이지요. 생각과 말은 느낌 후에 생겨나는 상相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감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감지와 일종의 미묘한 상相인 감각들도 모두 상相이고, 상相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나뉘지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분별이 있어야만 우리는 알거나 느낄 수 있는데, 진여의 마음은 취할 상相이 없으므로 결코 상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진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분별로 인한 망념을 떠난 경계는 오직 증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득證得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현상입니다. 본질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공췌은 허망한 마음妄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도 아니고, 있고 없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췌에 대해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이 공췌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과 경계들이고 공췌은 그 경계를 떠나 있다고 했습니다.

불공不空이라 말할 때의 불공不空은 ‘허망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췌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 어느 것도 아니니까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허망함마저 아니기에 불공不空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했으며 그 뒤에 남은 허망함마저 부정한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을 다 넘어가면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데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진여라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며 행복과 불행 아님도 아닌 것 즉, 삭막함마저도 아닌 것입니다. 삭막함과 삭막하지 않음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의 분별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를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그랬지요. 독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중에 다리가 저려오고 아파지니 “좀 전에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행복한 다리, 기분 좋은 다리였구나. 지금 다리가 아파지니까 그 기분 좋음이 사라졌네.” 다리의 통증이 잠시 사라지니 “다리가 아프지 않으니 너무 편하고 좋구나.”라며 마지막까지 탐구했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 사라지면 고통을 느낍니다. 쾌감과 고통, 행복과 불행은 말로 나눠놓았을 뿐이지 같은 것의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행복이고, 저렇게 느껴지는 것은 불행이야.”라고 분별해서 나누어 느낍니다. 그 나누는 마음이 망념인데 진여는 그것을 넘어있기에 공空이라고 하며, 또한 허망함이 없으므로 불공不空이라고 합니다. 이 진심真心이라는 것은 항상 불변하며 오염되지 않은 법淨法이고 만족滿足하므로 불공不空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는 공空도 아니고 불공不空도 아니고 또 공空이기도 하고 불공不空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공不空은 항상恒常하여 변하지 않고 만족한다고 했는데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변한다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짐을 말하

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현상은 상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인간이 없어도 그 현상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현상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相이 있어야 하고, 감각기관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우주공간에 무엇인가가 나타나려면 첫째로 이 나타남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 ‘무엇’이 나타나겠죠. ‘누군가’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측정기만 있고 측정될 대상이 없다면 측정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기가 있고 측정기에 닿아 나타날 대상이 동시에 있을 때에만 측정기와 대상은 둘 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측정기만 있거나 대상만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란 그 둘 사이의 ‘관계’라고 물리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라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관찰자의 문제라는 것은 존재를 혼드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양자역학은 관찰자가 없으면 관찰대상인 사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에 닿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대상’의 관계이며 나와 대상의 분열이고 현상입니다.

변하는 현상에는 상相이 있다고 했으므로 변하지 않는 불공不空은 상相이 없고 이는 감각기에 인지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각기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여섯 개의 감각기를 말합니

다. 의식意識도 마음으로 잡고 느끼는 일종의 감각感覺 기관입니다. 손이 물건을 잡듯이, 마음으로 무엇을 잡은 것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입니다. 손이 촉감의 감각기이듯이 의식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감각하는 감각기입니다. 다른 감각기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감각기와 의식적인 대상이 같이 있어야 '의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아닌 불공不空 즉 변함없는 불변의 세계는 감각기에 인지될 상相이 없으므로 불공不空은 의식 현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인 주체와 '무엇'에 해당하는 대상에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진여의 한 측면이고, 현상에 관계없는 것 그것이 불변인 것입니다. 불공不空이라는 진여는 이런 것들을 떠나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여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증득證得(증거를 통해 터득함)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은 '부분'에게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감각기가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냄새가 많이 나지만 한 20초만 지나면 냄새가 안 느껴집니다. 냄새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냄새는 계속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각기는 똑같은 것이 지속되면 느끼거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않기에 주의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계속해서 똑같이 난다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는 더 이상 그것을 분별하지 못 합니다. 이처럼 어떤 변화와 차이가 생겨야만 분별이 일어

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냄새를 맨 처음 맡았을 때는 화장실 들어오기 전과 ‘차이’가 나기에 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손을 탁자에 올리면 처음에는 탁자가 느껴지지만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 탁자와 손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압력도 특별히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손이고 어디가 탁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양탱크 Floating tank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와 온도가 같고, 채액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채워졌으며, 빛이 없는 암흑이고, 소리도 없는 침묵의 부양탱크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을 느끼려면 그 주변과 압력이나 온도 등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느낀다는 것 자체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느낌’이란 우리가 ‘부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전체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만큼 기쁨과 슬픔, 분노와 공포, 희열 등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은 ‘부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분만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여는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거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여는 부족함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입니다. 변화와 무관한 자리, 부족이나 넘침이 없는 자리, 앓과 느낌을 떠난 자리.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이처럼 불공不空은 불변이며 분별과 상관없는 자리이며, 느끼거나 알 수는 없는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야”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진여는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분별하는 우리의 개념과 세계를 떠나 있습니다. 세상世上과 세계世界는 다릅니다. 우주라는 ‘세상’은 나눌 수 없지만 이것

을 경계 지어 나누어 놓은 것이 우리 마음속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불이^二인데, 마음은 나눌 수 없는 것은 알거나 느낄 수 없으므로 마치 지도처럼 선을 그어 경계 지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자체를 알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세계만을 알거나 느끼는 것이죠. 그 세계는 실제의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세계는 마야Maya다’ 이런 뜻이죠. 세계는 환상입니다. 세상은 환상도 아니고 환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나누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진여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不공^空이란 변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은 것이지만 취할 상^相은 없다고 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공^空도 불공^不공^空도 상^相이 없으므로 공^空과 불공^不공^空의 차이가 없습니다. 공^空과 불공^不공^空이 있다는 것은 분별입니다. 지금 공^空과 불공^不공^空을 말로 나누었으니 그것은 당연히 분별이고 나누어놓은 마음의 상^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마^明은 “진^眞여는 공^空이기도 하고 불공^不공^空이기도 하다. 공^空은 이렇고 불공^不공^空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로만 보면 공^空이 따로 있고 불공^不공^空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불공^不공^空 또한 취할 상^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공^空과 불공^不공^空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껏 공^空과 불공^不공^空으로 나누어 분별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취할 상^相이 없으므로 공^空과 불공^不공^空에는 차이가 없다며 분별없음 속으로 다시 쪽 들어갔습니다.

또한 마^明은 무분별^{無分別}한 지^智혜를 통해서만 진^眞여를 증^證득^得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證득은 분별없는 지^智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이비설^{眼耳鼻舌}신

의眼耳鼻舌身意 감각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악이라는 것이 뭔가요? 손아귀로 무엇을 잡는 것이 파악입니다. 우리는 진여를 손으로 만져 촉감으로 파악할 수 없고, 눈을 통한 시각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마음이라는 의식으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여는 분별을 떠나 있으므로 진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분별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분별을 떠나서는 우리는 뭔가를 알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여의 증거를 통해서 증득證得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여의 증거는 사실 이 모든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라고 하는 것이죠. 번뇌가 있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은 생명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식을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한 사흘만 단식을 해보면 괴롭고 아픈 마음, 분노의 감정, 두렵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져요. 감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어야만 이 모든 현상계가 돌아갑니다. 번뇌煩惱도 생명의 힘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인 거예요. 망념을 떠난 세계는 오직 증득을 통해서만 상응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현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상을 넘어가는 오직 하나의 길이며 증득과 통하는 말입니다. 오늘 증득證得이라는 재미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접 얻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얻는 것도 아니죠. 얻는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진 것도 역시 현상 아닙니까? 모든 현상을 떠났다는 말은 말을 멈추고 생각을 끊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논증들이 모두 생각을 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행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부동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선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선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